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분노 및 우울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 and Mothers' Anger and
Depression on the Behavioral Problems of Preschoolers*

도현심(Hyun-Sim Doh)¹⁾

김민정(Min-Jung Kim)²⁾

최미경(Mi-Kyung Choi)³⁾

김상원(Sangwon Kim)⁴⁾

조수정(Soo-Jung Cho)⁵⁾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 and mothers' anger and depression on the behavioral problems of preschoolers. A total of 393 mothers with 3-year-old preschoolers responded to questionnaires, which included items related to marital conflict, mothers' anger and depression, and their preschoolers' behavioral problems.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indicated that marital conflict had no direct effect, but there were indirect effects on preschoolers' behavioral problems caused by mothers' anger and depression. Mothers who believed that they were experiencing high levels of marital conflict revealed high levels of anger and depression and reported higher rates of behavioral problems in their children. Mothers' depression also mediated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preschoolers' behavioral problems, but mothers' anger level apparently did not. The

* 본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 되었음(NRF-2010-330-C00001).

¹⁾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²⁾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연구교수

³⁾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⁴⁾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⁵⁾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박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 Hyun-Sim Doh,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20-750, Korea

E-mail : simdoh@ewha.ac.kr

effects of mothers' level of depression on preschoolers' behavioral problems were the highest among all the predictors. These findings imply that both improving marital relationships and regulating mothers' anger and depression levels need to be emphasized when designin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aimed at improving the behavioral problems of preschoolers.

Key Words :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어머니의 분노(mothers' anger), 어머니의 우울(mothers' depression), 유아의 행동문제(preschoolers' behavioral problems).

I. 서 론

유아기의 공격성은 아동의 인지 및 사회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으로서(Meehan, Hughes, & Cavell, 2003), 이후의 비행이나 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며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Walker, Kavangh, Stiller, Golly, Severson, & Feil, 1998),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력이 보고되어 왔다(Walker, O'Neill, Shinn, Ramsey, Patterson, Reid, & Capaldi, 1986). 또한, 아동기에 우울이나 불안장애를 겪게 되면 청소년기 및 그 이후 성인기에도 계속적으로 정신건강의 문제를 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Mazza, Abbott, Fleming, Huarache, Cortes, Park, Haggerty, & Catalano, 2008).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행동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어린 연령의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시급하다. 특히, 부모-자녀관계나 양육행동을 포함한 가족체계 요인들은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아동의 발달을 다양한 가족요인이 관련되는 과정으로 여기는 발달정신병리학적 관점(Cummings, & Davies, 2002; Cummings, Davies, & Campbell, 2000)에서 접근할 때, 아동의 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체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발달이론가들은 가족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의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부관계와 부모의 정서적 문제를 고려해왔다(Cummings et al., 2000).

여러 국내외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부부갈등은 아동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이다(Davies, & Cummings, 1994; Lim, & Yoon, 2010). 부부갈등은 유치원에서의 아동행동문제와 관련이 있었으며(Martin & Clements, 2002), 자녀가 5세 때 측정된 적대적인 부부 상호작용은 3년 뒤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를 예측하였다(Katz, & Gottman, 1993). 또 다른 연구에서도, 부부간 폭력과 적대감에 노출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더 많은 심리적 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Holtzworth-Munroe, Rehman, & Herron, 2000). 이와 유사하게, 국내 연구들도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됨을 보고하였다(Jung, & Kim, 2003; Yoon, & Choi, 2006). 부부 사이에 욕구가 상충되거나 목표 및 기대가 불일치하는 것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일부이지만, 이것이 장기화되고 그 정도가 심해질 경우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유아기에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부모의 전적인 보살핌과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의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의 부부갈등은 아동발

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Lim과 Yoon(2010)의 연구에서 보고되었듯이, 이제까지 발표된 대부분의 국내연구들은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아 대상의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기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부부갈등과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아동행동문제와 관련되는 또 다른 주요 가족 체계 요인으로 부모의 분노 및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들 수 있다. 분노는 생리적 각성이 동반된 불쾌한 정서를 뜻하는 것으로 적대감의 한 요소이다(Smith, 1994). 부모의 분노와 관련되어 발표된 몇 편 안되는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의 분노와 아동의 적응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가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의 분노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는데, 분노의 정도가 임상적 수준에 가까울수록 그 영향력이 컸으며(Denham, Workman, Cole, Weissbrod, Kendziora, & Zahn-Waxler, 2000), 어머니의 분노가 많을수록 유아는 분노 반응을 더 많이 보였다(Garner, & Estep, 2001). 그 외에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분노는 아동의 충동적, 도전적 행동이나 정서적 행동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Elgar, Waschbusch, McGrath, Stewart, & Curtis, 2004; Renk, Phares, & Epps, 1999). 국외연구와 유사하게, 국내연구 역시 부모의 분노와 유아의 행동문제를 직접적으로 관련시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다만, 유사한 주제의 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시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낮았으며(Kwon, 2010),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통제적일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낮았다(Kim, & Song, 2008). 또한, 학령기 아동의 경우, 표출하는 분노 표현방식에 있어서 모녀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보고되기도 하였다(Son, & Kim, 2005).

부모의 분노와 아동행동문제 간의 관계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데 비해,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정서적 문제 중에서 우울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우울한 부모를 둔 아동은 우울하지 않은 부모의 아동보다 다양한 정서 및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arber, & Martin, 2002; Olfson, Marcus, Druss, Pincus, & Weissman, 2003). 예를 들어 우울한 어머니를 둔 유아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내면화 문제행동이나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Essex, Klein, Cho, & Kraemer, 2003; Hipwell, Murray, Ducournau, & Stein, 2005). 생후 초기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단기 종단 연구에서도 자녀출생 후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걸음마기나 유아기 행동문제를 예측할 정도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였다(Caplan, Cogill, Alexandra, Robson, Katz, & Kumar, 1989; Carter, Garrity-Rokous, Chazan-Cohen, Little, & Briggs-Gowan, 2001). 국내연구의 경우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행동문제 간의 직접적 관계는 주로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Chang, Seo, & Jung, 2001; Jung, & Kim, 2003; Kim, 2007; Lee, & Park, 2005), 유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아동행동문제의 관련 요인으로 부부갈등과 부모의 정서적 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두 가지 위험요인의 축적 효과를 보여주었다. Essex 등(2003)에 따르면, 부부갈등 또는 어머니의 우울에 노출된 유아들은 그렇지 않은 유아들에 비해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며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우울에 모두 노출된 경우에는 더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Shaw와 Emery(1987)는 부부갈등과 부모의 증상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는 아동의 발달결과에 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아동행동문제의 관련 변인으로서의 부부갈등과 부모의 부정적 정서는 또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구체적으로, 우울증상은 부부관계 스트레스와 일관성 있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로서, 갈등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성인들에게서 우울증 유병율이 더 높았다(Whisman, 2000; Wisman, & Bruce, 1999). 부부관계 스트레스는 우울 에피소드의 가장 일반적인 선행사건이었으며(Paykel, Myers, Dienelt, Klerman, Lindenthal, & Pepper, 1969), 특히 여성의 경우 부부관계의 불만족이 우울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ncham, Beach, Harold, & Osborne, 1997). 부부갈등과 같은 부부관계 스트레스는 부모의 우울, 불안 및 적대감을 증가시키기도 하였다(Papp, Cummings, & Schermerhorn, 2004).

부부갈등과 분노 및 우울 간의 관련성은 Jack (1991)의 자기침묵 모델(The silencing the self model)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여성들은 의미 있는 타인과 갈등 없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참고 억누르게 되며 이러한 행동이 여성들을 우울에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부부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는 실증적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Uebelacker, Courtnage, & Whisman, 2003; Whiffen, Foot, & Thompson, 2007). Whiffen 등 (2007)은 자기침묵 중에서도 특히 부부갈등이 발생할 때 화를 숨기고 배우자에게 복종하는 척 행동하는 것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즉 부부갈등에서 발생하는 분노의 표현을 억누르는 행동이 결국에는 우울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부부갈등, 부모의 정서적 문제 및 아동행동문제 간의 관계에서 연구자들은 부모의 정서적 문제의 매개효과에 관심을 가져왔다(Connell, & Goodman, 2002).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발견하기 어려우나, 다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몇몇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관련성을 보여준다.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Papp et al., 2004)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불안, 우울 및 적개심은 부부간 갈등 및 적응과 같은 부부문제와 아동행동문제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또한 Harold와 Conger (1997)는 갈등적인 부부관계에서 표현되는 적대감이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표현되어 청소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일으킨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부부갈등이 발생할 때 아동이 부부갈등 이외에 부모의 부정적 정서에도 노출될 수 있으며 이것이 아동의 행동문제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가정하게 한다.

매개변인으로서의 부모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국내연구는 그동안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최근 20년간 발표된, 부부갈등에 대한 국내 학회지 논문을 분석한 Lim과 Yoon(2010)에 따르면, 부모 특성을 매개변인으로 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양육행동을 매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단 한 편의 논문만이 어머니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부부갈등이 아동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각도로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매개변인으로서의 부모의 정서적 문제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분노 및 우울의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부모의 특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진작시키고자 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부갈등은 분노, 우울 등

의 정서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정서 간의 관계를 살피는 것 역시 중요하다. 분노와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해 전통적 정신분석에서는 상실된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분노가 자기 자신에게 향한 결과를 우울이라고 가정하였다(Freud, 1917; 1985). 이러한 이론적 설명은 분노와 우울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통해 어느 정도 지지되었다(Biaggio, & Godwin, 1987; Brody, Haaga, Kirk, & Solomon, 1999; Lee, 2000). 앞서 언급한 Jack(1991)의 자기침묵 모델 역시 분노가 우울에 이르는 경로를 밝히고 있어, 분노와 우울 간의 인과적 관계를 가정할 수 있다. 몇몇 국내 연구들에서도 분노를 통제할수록 개인의 우울 수준이 낮았으며(Lee, 2000), 분노억제와 표출은 부정적인 형태의 분노 표현 방식으로, 분노 표현의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았다(Ko, 1994). 아울러, 우울한 개인들은 지나치게 분노의 표현을 두려워하고 이를 억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iaggio, & Godwin, 1987; Brody et al., 1999; Lee, 2000).

이상에서 살펴본 부부갈등, 분노 및 우울 간의 관계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

에서는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분노와 우울에 각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분노가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인들과 아동행동문제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부갈등이 직접적으로 유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분노와 우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종합해 보면, 본 연구는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분노와(혹은) 우울을 통해 유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분노 및 우울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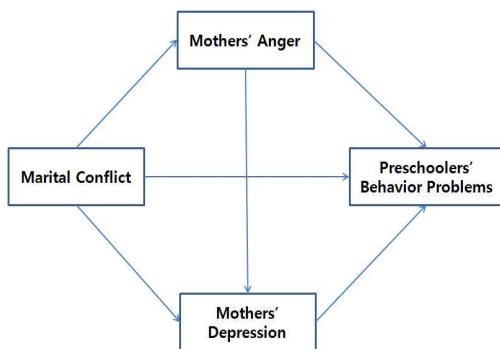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Figure 1).

<연구문제 1>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분노 및 우울은 유아의 행동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18곳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393명의 만 3세 유아(평균 : 46개월, 표준편차 : 3.44)로서, 그들의 어머니가 응답에 참여하였다. 아동행동문제를 예방적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생후 초기의 어린 유아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유아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부모관련 위험 요인들 가운데 부모의 분노 등이 포함된다는 연구결과들(Conger, Neppl, Kim, & Scaramella, 2003; Trapolini, McMahon, & Ungerer, 2007)에 근거한 것이다.



<Figure 1> Linking marital conflict to preschoolers' behavioral problems through mothers' anger and depression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47.3%(186명), 여아가 52.7%(207명)이고, 유아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45.8%(180명), 둘째가 48.9%(192명), 셋째 이상이 4.6%(18명)이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35~39세가 52.7%(207명), 40~44세가 23.4%(92명)이었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35~39세가 45.3%(178명), 30~34세가 39.9%(157명)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49.1%(193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학원 이상으로 28.2%(111명)이었으며, 어머니는 대학교 졸업이 50.1%(197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가 21.8%(86명)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42.7%(168명), 전문직 및 고위관리직이 19.8%(78명), 자영업 및 일반판매직이 14.0%(55명)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전업주부가 47.1%(185명)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24.9%(98명), 전문직 및 고위관리직이 10.7%(42명)이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부부갈등, 어머니의 분노 및 우울과 유아의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구성되었다. 모든 척도는 어머니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으로 응답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인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1) 부부갈등 척도

부부갈등 척도는 Grych, Seid와 Fincham (1992)이 개발한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

parental Conflict Scale(CPIC)을 Kwon과 Lee (1997)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K-CPIC의 8개 하위 요인들 가운데 부부갈등의 빈도(7문항)와 강도(4문항)의 두 요인만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여러 하위요인들 가운데 빈도와 강도를 측정하여 그 타당성을 확보한 선행 국내외 연구들(Grych et al., 1992; Kim, 2010; Noh, & Song, 2007)에 근거하였다. 또한, K-CPIC는 아동 보고용이나, 문항의 내용상 부모가 직접 응답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모 보고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부부갈등의 빈도는 ‘자주 다투거나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 ‘아이가 주위에 있을 때에도 자주 서로에게 심술궂게 대한다.’ 등으로, 부부갈등의 강도는 ‘다툼 때 굉장히 화를 많이 낸다.’, ‘다툼은 도중 서로 밀거나 밀쳐낸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부갈등의 빈도 및 강도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82와 .81이었다.

2) 어머니의 분노 척도

어머니의 분노는 Chon, Kim과 Yi(2000)의 척도를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상태분노(10문항), 특성분노(10문항), 분노억제(8문항), 분노표출(8문항) 및 분노통제(8문항) 등 5개 하위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태분노와 특성분노는 분노경험 차원에, 분노억제, 분노표출 및 분노통제는 분노표현 차원에 포함된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분노의 표현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분노억제, 분노표출 및 분노통제¹⁾ 등 3개 하위 요인(24문항)만을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분노억제의 경우, ‘말을 하지 않는다.’, ‘아무에게도 말하지는 않으나, 앙심을 품는 경향이 있

1) 본 분석 시 분노통제 요인은 요인부하량(β)의 절대값이 .40이상에 미치지 못하여 제외되었음(Kim, 2007).

다.’ 등으로, 분노표출의 경우, ‘문을 쾅 닫는 식의 행동을 한다.’, ‘자제심을 잃고 화를 낸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노통제의 경우,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대한다.’, ‘화가 나더라도 침착하게 자제할 수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분노억제는 .83, 분노표출은 .79, 분노통제는 .81이었다.

3) 어머니의 우울 척도

어머니의 우울은 Radloff(1977)의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CES-D)를 Shin, Kim, Yoon, Kim, Lee, Moon, Lee, Lee와 You(1991)가 국내에서 번안하여 표준화 및 요인구조에 대한 횡문화적 검토를 수행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울감정(5문항), 긍정적 감정(4문항),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5문항) 및 대인관계(2문항) 등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우울감정의 경우, ‘기분이 우울했다.’, ‘외로움을 느꼈다.’ 등으로, 긍정적 감정의 경우,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생활이 즐거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의 경우,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도 귀찮게 느껴졌다.’, ‘무슨 일이든 활발하게 참여할 수가 없었다.’ 등으로, 대인관계의 경우, ‘사람들이 다정하지 못하다고 느꼈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감을 측정하는 하위 요인들 간의 방향성을 일치시키기 위해, 긍정적 감정을 역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요인별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우울감정은 .76, 부정적 감정은 .70,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은 .69, 대인관계는 .55이었다.

4) 유아의 행동문제 척도

유아의 행동문제는 공격성과 우울로 구분되며, Crick, Casas와 Mosher(1997)의 교사용 유아기 사회적 행동 척도인 PSBS-T(Preschool Social Behavior Scale-Teacher Form)를 어머니용으로 수정·번안하여 사용하였다. PSBS-T는 외현화 공격성(6문항), 관계적 공격성(6문항), 친사회적 행동(4문항), 우울(3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 및 우울과 같은 아동행동문제에 초점을 두어 친사회적 행동 요인을 제외한 3가지 하위요인을 사용하였다. 또한, 아동행동문제의 외현화 및 내면화 측면을 고려하여, 외현화 측면인 공격성에 포함되는 요인들, 즉 외현화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은 합산하였다. 문항의 예를 들면, 공격성 요인에는 ‘다른 아이들을 밀치거나 떠민다.’, ‘다른 아이들이 어떤 아이를 싫어하도록 만든다.’ 등의 문항들이, 내면화 행동문제 측면인 우울 요인에는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다.’, ‘슬퍼 보인다.’ 등의 문항들이 포함된다. 유아의 공격성과 우울의 Cronbach's α 는 각각 .88과 .68이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서울시에 위치한 18곳 어린이집 기관장의 동의하에 실시되었으며, 각 기관은 스노우볼링(snow-balling) 방식을 이용하여 표집되었다. 2011년 4월에 유아 편에 어머니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배부된 질문지는 1~2주일 후에 회수하였다. 배부된 512부 가운데 422부가 회수되었다(82%의 회수율). 이들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1부)와 이상치(Outlier)²⁾가 있는 자료들(28부)을 제거하고, 총 393부를 본 분

2) Z-score가 ± 3 이상인 경우를 이상치로 봄(Kim, 2007).

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도구의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관련 변인들 간의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EM)을 분석하였고, 이 때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χ^2 와 함께 적합도 지수를 제시하였다. χ^2 검증은 영가설의 내용이 매우 엄격하여 내용이 쉽게 기각되며 표집의 크기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적합도 가운데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NFI(Normed Fit

Index)를 사용하였다. RMSEA는 보통 .05이하일 경우 그 모델은 적합도가 좋다고 해석하고 .08이하일 경우 양호하다고 평가하며, TLI, CFI와 NFI는 적합도 지수가 .90이상 일 때 그 모델의 적합성이 좋다고 해석한다(Hong, 2000). 또한, 경로의 효과성을 분해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Kim, 2007)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분석에 앞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

<Table 1> Correlations among research variables ($N = 393$)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u>Marital conflict</u>											
1. Frequency	-										
2. Severity	.67**	-									
<u>Mothers' anger</u>											
3. Anger expression-in	.30**	.22**	-								
4. Anger expression-out	.39**	.43**	.57**	-							
5. Anger control	-.12*	-.17**	-.02	-.29**	-						
<u>Mothers' depression</u>											
6. Depressive affect	.26**	.27**	.32**	.23**	-.10	-					
7. Negative affect	.25**	.24**	.34**	.23**	-.21**	.39**	-				
8. Somatic and retarded activities	.20**	.24**	.35**	.24**	-.02	.59**	.38**	-			
9. Interpersonal	.18**	.15**	.32**	.22**	-.11*	.38**	.27**	.33**	-		
<u>Preschoolers' behavior problems</u>											
10. Aggression	.13*	.17**	.15**	.17**	-.06	.16**	.14**	.15**	.09	-	
11. Depression	.23**	.20**	.20**	.17**	-.10	.26**	.15**	.30**	.22**	.36**	-
M	1.57	1.73	1.90	1.88	2.77	1.34	2.16	1.58	1.22	1.24	1.30
SD	.53	.47	.51	.45	.44	.39	.63	.45	.37	.31	.40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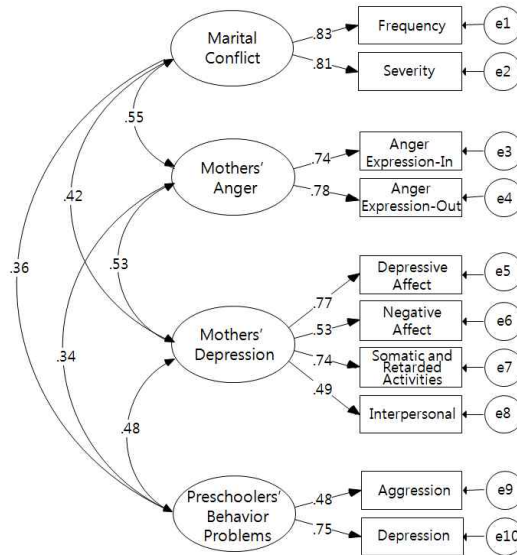
<Table 2> Factor loadings of observed model (N = 393)

Latent variables	Observed variables	B	β	SE	t	p
Marital conflict	Frequency	1	.83	-	-	-
	Severity	.86***	.81	.08	10.40	***
Mothers' anger	Anger expression-In	1	.74	-	-	-
	Anger expression-Out	.94***	.78	.09	9.59	***
Mothers' depression	Depressive affect	1	.77	-	-	-
	Negative affect	1.11***	.53	.12	9.08	***
	Somatic and retarded activities	1.12***	.74	.10	11.82	***
	Interpersonal	.61***	.49	.07	8.50	***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s	Aggression	1	.48	-	-	-
	Depression	2.03***	.75	.45	4.56	***

***p < .001.

<Table 3> Fit index of observed model (N = 393)

Variables	χ^2	GFI	RMSEA	CFI	TLI	NFI
Index	74.995	.965	.064	.954	.929	.929



<Figure 2> Factor loadings of observed model

하였다(Table 1). 부부갈등의 하위변인인 빈도와 강도, 어머니 분노의 하위요인인 분노억제, 분노 표출 및 분노통제, 어머니 우울의 하위요인인 우

울감정, 부정적 감정,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이하, 신체둔화행동) 및 대인관계, 그리고 유아의 행동문제의 하위요인인 유아의 공격성 및 우울

등 연구변인들 간에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이에 더해, 독립변인들 간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분산팽창계수(VIF) 및 공차한계(Tolerance) 값은 각각 10 이하(1.204-2.010)와 0.1 이상(0.497-0.831)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우려되지 않았다.

2. 측정모형의 분석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절히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변인들 간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요인부하량(β)은 일반적으로 절대값이 .40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한다(Kim, 2007).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이 이에 해당하였으나, 어머니 분노의 하위요인인 ‘분노통제’가 -.29의 수치를 보여 이를 삭제하였다(Table 2, Figure 2).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74.995(df = 29)$, $\chi^2/df = 2.59$, GFI = .965, CFI = .954, NFI = .929, TLI = .929, RMSEA = .064로서, $\chi^2/df < 3$ (Kline, 1998), CFI > .90, NFI > .90, TLI >

.90(March & Hau, 1996), RMSEA < .08(Browne & Cudeck, 1993)라는 기준을 충족시켜 적합성이 검증되었다(Tabl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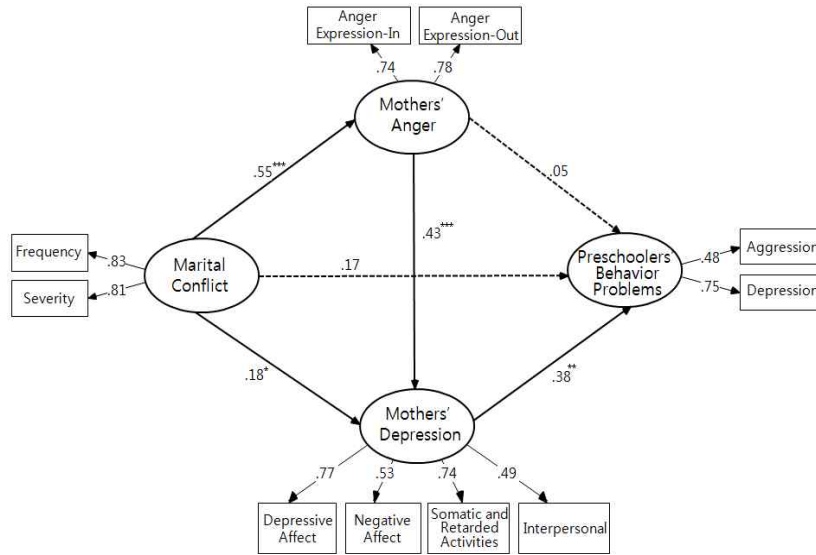
3. 구조모형 분석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합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분노 및 우울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74.995(df = 29)$, $\chi^2/df = 2.59$, GFI = .965, CFI = .954, NFI = .929, TLI = .929, RMSEA = .064로 산출됨으로써, 본 연구의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 간의 경로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첫째, 부부갈등은 유아의 행동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eta = .17, p > .05$). 둘째,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분노($\beta = .55, p < .001$)에, 어머니의 분노는 어머니의 우울($\beta = .43, p < .001$)에,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행동문제($\beta = .38, p < .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분노 수준은 높아지고, 이는 어머니의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

<Table 4> Path estimates of latent variables (N = 393)

Path of latent variables	B	β	SE	t	p
Marital conflict →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s	.06	.17	.03	1.81	.071
Mothers' anger →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s	.02	.05	.04	.45	.650
Mothers' depression →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s	.31	.38	.10	3.22**	.001
Marital conflict → Mothers' depression	.07	.18	.03	2.22*	.026
Mothers' anger → Mothers' depression	.21	.43	.05	4.58***	***
Marital conflict → Mothers' anger	.47	.55	.06	7.36***	***



Note 1. Measurement errors are deleted.

Note 2. Solid and perforated lines represent significant and insignificant paths, respectively.

* $p < .05$. ** $p < .01$. *** $p < .001$.

<Figure 3>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preschoolers' behavioral problems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predicting preschoolers' behavioral problems from marital conflict and a mother's anger and depression ($N = 393$)

Path of latent variables	Bootstrapping			R^2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Marital conflict →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s	.17	.19**	.36*	.26
Mothers' anger →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s	.05	.17**	.22*	
Mothers' depression →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s	.38**	-	.38*	
Marital conflict → Mothers' depression	.18*	.24**	.42**	.23
Mothers' anger → Mothers' depression	.43***	-	.43**	
Marital conflict → Mothers' anger	.55***	-	.55*	

* $p < .05$. ** $p < .01$. *** $p < .001$.

쳐, 나아가 유아는 공격성이나 우울과 같은 행동 문제를 보다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분노($\beta = .55, p < .001$)에 영향을 미쳤으나, 어머니의 분노는 유아

의 행동문제($\beta = .05, p > .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부부갈등이 클수록 어머니의 분노 수준은 높았으나, 유아의 행동문제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부부갈등은 어머니

의 우울($\beta = .18, p < .05$)에,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행동문제($\beta = .38, p < .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부갈등이 클수록 어머니의 우울 수준은 높았으며, 이는 높은 수준의 유아의 행동문제와 관련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모형으로 그려보면 Figure 3과 같다.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분노 및 우울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직·간접효과와 총 효과를 살펴본 결과(Table 5), 유아의 행동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우울($\beta = .38, p < .05$)이었으며, 부부갈등($\beta = .36, p < .05$)과 어머니의 분노($\beta = .22, p < .05$)가 뒤를 이었다. 부부갈등과 유아의 행동문제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분노와 우울의 매개효과는 Bootstrapping³⁾ 방법을 사용하여 그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즉, 부부갈등은 유아의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beta = .17, p > .05$), 어머니의 분노와 우울을 통해서, 그리고 어머니의 우울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beta = .19, p < .01$).

각각의 내생변인을 설명하는 다중상관치(SMC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 어머니의 분노 및 우울은 유아 행동문제의 분산의 26%를 설명하였다. 부부갈등과 어머니 분노의 어머니의 우울에 대한 설명력과 부부갈등의 어머니 분노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23%와 30%이었다.

3) Amos 프로그램에서 간접효과의 유의확률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인 Bootstrapping은 추정치를 k번 반복 추정하여 분포의 형태를 가정하지 않는 추정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하는 방법이므로, 소위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 : 측정변인이 정규분포를 따를 때 정확한 미지수의 계산이 가능)과 결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음(Kim, 2007).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부갈등, 어머니의 분노 및 우울과 유아의 행동문제 간의 직접적, 간접적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분노 및 우울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이룬 국내외 연구결과들(Holtzworth-Munroe et al., 2000; Jung, & Kim, 2003; Martin, & Clements, 2002; Yoon, & Choi, 2006)과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예비분석에서 부부갈등과 유아의 행동문제 간의 개별적 상관관계가 유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일치가 도출된 것은 부부갈등과 동시에 고려한 어머니의 분노나 우울의 상대적 영향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분노 및 우울 가운데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행동문제에 가장 커다란 직접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부부갈등과 아동문제행동 간의 직접적 관계를 보고한 선행 연구들(Jung, & Kim, 2003; Yoon, & Choi, 2006)에서 양 변인 간의 매개변인은 어머니의 분노나 우울과 같은 정서적 특성이 아니라 양육행동이 있다는 점에서도, 양 변인 간 관계의 유의성 여부는 매개변인의 영향력에 의존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종속변인으로서의 아동행동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와 같이 내면화 행동과 외현화 행동을 모두 포함하기보다는 부적응 행동(Jung, & Kim, 2003), 심리적 문제(Holtzworth-Munroe et al., 2000), 부정적 반응성(Martin, & Clements, 2002) 등 다양한 행동특성을 살펴보았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분노 및 우울을 통

해 유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는 유의하였다. 즉, 부부간에 갈등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분노 수준이 높아졌으며 이것은 다시 어머니의 우울을 야기했고, 이는 유아의 공격성이나 우울과 같은 행동문제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문제 모두를 동시에 포함한 연구를 발견하기 어려워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부부의 분노나 우울과 같은 문제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아동행동문제를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연구결과(Papp et al., 2004)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부부간에 갈등을 많이 겪게 되는 경우, 이러한 갈등적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어머니들은 분노감을 갖게 되며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감은 정서적으로 우울한 감정을 증폭시키게 되고, 나아가 우울한 어머니가 양육하는 자녀들은 어머니와 유사하게 우울을 경험하거나 자녀 자신의 정서를 통제하지 못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간의 갈등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분노수준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와의 갈등이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높은 적대감, 분노수준, 분노표현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Chon, Smith, & Kim, 2004)와 일치한다. 또한 부부갈등과 같은 부부관계 스트레스는 부모의 우울, 불안과 함께 적대감을 증가시켰다는 연구결과(Papp et al., 2004)와도 유사하다. 본 연구결과 외에도 부부간 갈등이 많을 때 발생하는 분노의 감정은 이혼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Wallerstein, Lewis, & Blakeslee, 2000)에서 부부간 갈등으로 인한 분노나 적개심과 같은 정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어머니의 분노수준이 높을수록 우울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분노의 표출이 우울과 유의하게 관련된다는 연구결과(Ko, 1994)와 일치한다. 그 외, 우울감과 낮은 수준의 분노통제가 서로 관련된다는 연구결과(Lee, 2000)나 우울한 개인들이 분노의 표현을 두려워하고 이를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들(Biaggio, & Godwin, 1987; Brody et al., 1999; Lee, 2000)과 같이 양자 간의 밀접한 관계를 밝힌 선행 연구들과도 유사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강하여,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게 되며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우울에 더 취약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Jack, 1991)에 근거할 때, 부부간의 갈등상황에서 발생한 어머니의 분노가 우울로 연결되기 전에 이러한 불편한 정서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감정조절 프로그램이 활발히 개발, 보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행동문제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부모의 우울과 자녀 우울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한 기존의 연구결과들(Chang et al., 2001; Jung, & Kim, 2003)과 일치한다. 또한 우울한 부모를 둔 아동은 우울하지 않은 부모의 아동보다 정서 및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였던 연구결과들(Garber, & Martin, 2002; Olfson et al., 2003)과도 유사한 맥락이다. 우울한 어머니는 아동의 욕구에 대한 정서적 반응성이 떨어지고 관심이 낮아져 자녀의 욕구는 충족되기 어려워지며 이는 다시 아동의 불안, 수동성과 같은 내면화 문제와 공격성과 같은 외면화 문제로 발전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Angold, & Costello, 1995).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정신건강이 자녀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 있는 결과로, 유아의 행동문제의 선행변인으로서 부모의 정서 상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 즉, 아동이 표출하

는 행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만을 교육 및 치료의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아동의 근접환경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어머니의 정신적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통합적인 교육이나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부부갈등과 어머니 분노 간의 유의한 경로가 나타난 점과 달리, 어머니의 분노가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음으로써, 어머니의 분노는 부부갈등과 유아의 행동문제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분노와 유아의 행동문제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들(Denham et al., 2000; Garner, & Estep, 2001)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분노가 유아의 행동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은 앞서 부부갈등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던 점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즉, 어머니의 분노와 유아의 행동문제는 개별적으로는 유의한 상관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로 모형에서 어머니의 분노와 우울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어머니의 분노보다는 우울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보다 강하여 어머니 분노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우울을 통해 유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부간에 갈등이 많을수록 어머니는 우울감이 높아졌고 이는 다시 유아의 행동문제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가 드물어 직접적인 비교가 드물다. 그러나 학령기와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심리적 문제로서 우울이 부부문제와 아동행동문제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했던 Papp 등(2004)과 유사하다. 이는

미혼남녀의 대대수가 부부됨이나 부모됨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준비 없이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부부가 보다 원만하고 만족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부부간 갈등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부간 갈등이해와 갈등해결 대화법을 포함한 예방적 노력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각각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결혼생활에서 갈등을 겪는 부부들의 우울증 유병율이 그렇지 않은 부부들에 비해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들(Whisman, 2000; Wisman, & Bruce, 1999)과 일치한다. 또한 부부관계가 불만족스러운 여성의 경우 우울을 야기한다는 보고(Fincham et al., 1997)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여성들은 분노를 표현하도록 사회화되지 않은 경향이 있어 불만이 있더라도 내부적인 우울이나 실망감과 같은 스트레스로 전환시키기 쉽다(Agnew, 1994).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행동문제 간의 경로에 관해서는 앞서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분노와 우울을 통해 유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관련하여 서술한 바와 같다.

결론적으로, 부부갈등, 어머니의 분노 및 우울, 그리고 유아의 행동문제 간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은 유아의 행동문제에 직접적으로 보다는 분노와 우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부부갈등은 우울을 거쳐 유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매개변인으로서 어머니 우울은 세 가지 독립변인들 가운데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올바른 자녀양육법 뿐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 자신의 정서 상태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부부갈등이 유의한 변인이었음을 고려할 때, 미래의 부모교육은 어머니들 뿐 아니라 아버지 혹은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형식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한 어머니 보고에 의존하여 다양한 보고자에 의해 측정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나 교사 등 다양한 보고자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갈등, 어머니의 분노 및 우울과 유아의 행동문제를 측정함으로써, 인과관계를 분명히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종단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우울 척도 가운데 신체적 둔화된 행동 및 대인관계와 유아의 행동문제 척도 중 우울 요인의 경우 내적일치도가 다소 낮은 편에 속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척도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부갈등과 유아의 행동문제 간의 경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제외한 어머니의 분노와 우울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만을 살펴보았다. 부부간의 갈등은 부부 각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부부갈등이 상대적으로 아버지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이 다시 아동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가 있다. 아동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는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양육행동 관련 변인에 치우쳐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벗어나 가정의 분

위기를 좌우하며 부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부갈등 변인을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아버지보다 자녀양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많은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상태가 유아의 행동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밝힘으로써, 그동안 등한시 해왔던 부모의 정신건강이 양육환경의 주요 변인임을 밝혔다. 본 연구는 유아의 행동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 우선 어머니의 정신적 건강이 중요하며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부부가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부부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진행을 돕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Angold, A., & Costello, E. J. (1995). A test-retest reliability study of child-reported psychiatric symptoms and diagnoses using the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assessment (CAPA-C). *Psychological Medicine*, 25, 755-762.
- Biaggio, M. K., & Godwin, W. H. (1987). Relation of depression to anger and hostility constructs. *Psychological Reports*, 61, 87-90.
- Brody, C. L., Haaga, D. A., Kirk, L., & Solomon, A. (1999). Experiences of anger in people who have recovered from depression and never-depressed peopl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7(7), 400-405.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

- 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11-135). Beverly Hills, CA : Sage.
- Caplan, H. L., Cogill, S. R., Alexandra, H., Robson, K. M., Katz, R. & Kumar, R. (1989). Maternal depression and the emotional development of the child.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4, 818-822.
- Carter, A. S., Garrity-Rokous, F. E., Chazan-Cohen, R., Little, C., & Briggs-Gowan, M. J. (2001). Maternal depression and comorbidity : Predicting early parenting, attachment security, and toddler social-emotional problems and competenci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1), 18-26.
- Chang, E. J., Seo, M. J., & Jung, C. H. (2001). The study of relation to variables related to children's depression and parents' depression.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12(2), 245-255.
- Chon, K. K., Kim, D. Y., & Yi, J. S. (2000). Development of the STAXI-K : IV.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7(1), 33-50.
- Chon, K. K., Smith, T. W., & Kim, Y. J. (2004). Anger, marital satisfaction, and coronary heart diseas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9(2), 539-554.
- Conger, R. D., Neppl, T., Kim, K. J., & Scaramella, L. (2003). Angry and aggressive behavior across three generations :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of parents an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 An Official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31(2), 143-160.
- Connell, A. M., & Goodman, S. H. (2002). The association between psychopathology in fathers versus mothers and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8, 746-773.
- Crick, N. R., Casas, J. F., & Mosher, M. (1997).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in pre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3(4), 579-588.
- Cummings, E. M., & Davies, P. T. (2002).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children : Recent advances and emerging themes in process-oriented researc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3, 31-63.
- Cummings, E. M., Davies, P. T., & Campbell, S. B. (2000).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nd family process :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New York : Guilford.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387-411.
- Denham, S. A., Workman, E., Cole P. M., Weissbrod C., Kendziora K. T. & Zahn-Waxler C. (2000). Prediction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from early to middle childhood : The role of parental socialization and emotion exp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1), 23-45.
- Elgar, F. J., , Waschbusch, D. A., McGrath, P.

- J., Stewart, S. H., & Curtis L. J. (2004). Temporal relations in daily-reported maternal mood and disruptive child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2(3), 237-247.
- Essex, M. J., Klein, M. H., Cho, E., & Kraemer, H. C. (2003). Exposure to maternal depression and marital conflict : Gender differences in children's later mental health symptom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2(6), 728-737.
- Fincham, F. D., Beach, S. R. H., Harold, G. T., & Osborne, L. N. (1997).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on : Different causal relationships for men and women. *Psychological Science*, 8, 351-357.
- Freud, S. (1917/1985). Mourning and melancholia. In J. C. Coyne (Ed.), *Essential papers on depression*.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Press.
- Garber, J., & Martin, N. C. (2002). Negative cognitions in offspring of depressed parents : Mechanisms of risk. In S. H. Goodman & I. H. Gotlib (Eds.),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pp. 121-153).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arner, P. W. & Estep, K. M. (2001). Emotional competence, emotion socialization, and young children's peer-related social competence.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2(1), 29-48.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Harold, G. T. & Conger, R. D. (1997)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distress : The role of adolescent awareness. *Child Development*, 68(2), 333-350.
- Hipwell, A. E., Murray, L., Ducournau, P., & Stein. (2005). The effects of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al conflict on children's peer play. *Child :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1(1), 11-23.
- Holtzworth-Munroe, A., Rehman, U., & Herron, K. (2000). General and spouse-specific anger and hostility in subtypes of maritally violent and nonviolent men. *Behavior Therapy*, 31, 603-630.
- Hong, S. H.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Jack, D. (1991). *Silencing the self : Women and depression*.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Jung, M. K., & Kim, Y. H. (2003). Maternal parenting experience, depression, marital conflict, & parenting behavior predicting school children's mal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8), 123-137.
- Katz, R. F. & Gottman, J. M. (1993). Patterns of marital conflict predict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29(6), 940-950.
- Kim, E. K., & Song, Y. H. (2008). A study on

-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childhood experience, mother's emotional regulation style, mother's attitude toward her child'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reschoolers' emotional ability.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4(1), 43-64.
- Kim, K. M. (2010). Marital conflict,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friendship quality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K. S. (2007). *AMOS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 Hannarae.
- Ko, Y. I. (1994). The college students' anger expression modes in relation to depression and aggre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won, Y. H. (2010). Children's temperament,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 Mothers' emotional behaviors as mediator.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61, 257-280.
- Kwon, Y. O., & Lee C. D. (1997). A validation study on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18(1), 65-80.
- Lee, H. J. (2000). The relationships of paranoia and depression to the mode of anger express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3), 427-438.
- Lee, Y. J., & Park, K. (2005). The relations between mothers' depression,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Psychotherapy*, 5(2), 39-57.
- Lim, J. H. & Yoon, J. J. (2010). A review of interparental conflict in relation to child developmental outcomes in Korean journal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7(1), 263-284.
- Martin, S. E., & Clements, M. L. (2002). Young children's responding to interparental conflict : Associations with marital aggression and child adjustment.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1(2), 231-244.
- Mazza, J. J., Abbott, R. D., Fleming, C. B., Huarache, T. W., Cortes, R. C., Park, J., Haggerty, K. P., & Catalano, R. F. (2008). Early predictors of adolescent depression : A 7-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10), 1-29.
- Meehan, B. T., Hughes, J. N., & Cavell, T. A. (2003).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as compensatory resources for aggressive children. *Child Development*, 74, 1145-1157.
- Noh, J. H., & Song, H. J.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conflict, parenting attitudes and social anxiety. *Journal of Psychotherapy*, 7(2), 75-89.
- Olfson, M., Marcus, S. C., Druss, B., Pincus, H. A., & Weissman, M. M. (2003). Parental depression, child mental health problems, and health care utilization. *Medical Care*, 41(6), 716-721.
- Papp, L. M., Cummings, E. M., & Schermerhorn, A. C. (2004). Pathways among marital distress, parental symptomatology, and child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 368-384.

- Paykel, E. S., Myers, J. K., Dienelt, M. N., Klerman, G. L., Lindenthal, J. J., & Pepper, M. P. (1969). Life events and depression : A controlled stud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1*, 753-760.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enk, K., Phares, V., Epps, J.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nger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3*(2), 209-227.
- Shaw, D. S., & Emery, R. E. (1987). Parental conflict and other correlates of the adjustment of school-aged children whose parents have separated.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269-281.
- Shin, S. C., Kim, M. G., Yoon, G. S., Kim, J. H., Lee, M. S., Moon, S. J., Lee, M. J., Lee, H. Y., & You, K. J. (1991).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CES-D) : Its us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0*(4), 752-767.
- Smith, T. W. (1994). Concepts and methods in the study of anger, hostility, and health. In A. W. Siegman & T. W. Smith (Eds.), *Anger, hostility, and the heart*. NJ : Erlbaum.
- Son, M. J., & Kim, K. W. (2005). Parent and children's anger expression modes and assertive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2*(1), 89-103.
- Trapolini, T., McMahon, C. A., & Ungerer, J. A. (2007). The effect of maternal depression and marital adjustment on young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ur problems. *Child :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3*(6), 794-803.
- Uebelacker, L. A., Courtage, E. S., & Whisman, M. A. (2003). Correlates of depression and marital dissatisfaction : Perceptions of marital communication style. *Journal of Social Personal Relationships, 20*(6), 757-769.
- Walker, H. M., Kavanagh, D., Stiller, B., Golly, A., Severson, H. H., & Feil, E. G. (1998). First step to success : An early intervention approach for preventing school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 Disorders, 6*(2), 66-80.
- Walker, H. M., O'Neill, R., Shinn, M., Ramsey, B., Patterson, G. R., Reid, J., & Capaldi, D. (1986). *Longitudinal assessment and long term follow-up of antisocial behavior in fourth grade boys : Rationale, methodology, measures, and result*. Unpublished paper, University of Oregon.
- Wallerstein, J., Lewis, J., & Blakeslee, S. (2000). *The unexpected legacy of divorce : A 25 year landmark study*. New York : Hyperion.
- Whiffen, V. E., Foot, M. L., & Thompson, J. M. (2007). Self-silencing mediates the link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depress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4*(6), 993-1006.
- Whisman, M. A. (2000). The 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 and marital dissatisfaction. In S. R. H. Beach (Ed.), *Marital and family processes in depression : A scientific foundation for clinical practice* (pp. 3-24).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iation.

Wisman, M. A., & Bruce, M. L. (1999). Marital dissatisfaction and incidence of major depressive episode in a community samp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8*(4), 674-678.

Yoon, H. M. & Choi, M. J. (2006). Effects of mothers' depression and marital conflict on problem behaviors of young children :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child neglect.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47*, 21-44.

2011년 12월 31일 투고, 2012년 3월 15일 수정
2012년 3월 25일 채택